

野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추궁...與 박원순 청년수당 집중포화

11개 상임위 국감 정상화

국감 파행 책임 놓고 공방 건보이사장·심평위원장 “백남기 사인 외인사” 소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가운데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4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파행의 원인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론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시끄러운 공방을 벌였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했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K스포츠재단이 설립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수사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안정행정부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파행을 거듭했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새누리당의 국회 복귀로 정상화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사진 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사진 아래)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능한 청년 복지 정책을 지자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원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정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출신인 손병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 ‘외인사’라는 소견을 내놨다. 성 이사장은 이날 기동민 더민주 의원

의 질의에 “그동안의 정황과 언론 보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볼 때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주치의가 ‘병사’라고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긴 어렵지만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진에 6500억 원의 외상채무가 있으면서도 내 팔 하나 자르겠다는 대주주의 의지가 없었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더라도 누가 돈을 빌려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조 회장은 “한진해운에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했지만 대형 선사들의 저가 공세에 당할 수가 없었다”며 추가 사채출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현장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안행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행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복지위에서는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충돌했다.

野, 새누리에 국감 파행 사과·유감 표명 요구

◇보건복지위=지난주 국감 파행 책임과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증인 채택 공방으로 30여분 지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에서 “지난 일주일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과 피감기관, 증인, 참고인들에게 입장 표명과 사과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적어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며 “복지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파행으로 시작된 국감 일주일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야당 의원이 사과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원은 모두 소신이 있고 당의 공헌을 받아 당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윤 의원이 사과할 일”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종합국감에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위에서 월가할부할 것이 아니다”며 “의사들이 결정해야지 증인으로 유가족이 와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국감 박원순 시장 대권행보·채무 감축 공방

◇안정행정부=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대권행보와 서울시 채무 감축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최근 박 시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언급하며 “출마하시는 거죠”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 의원은 “유력 정치인 한 사람으로 그런 고민이 왜 없겠느냐는 말씀”이라는 박 시장의 답변을 끊고 “됐고요, 언제쯤 결심하세요”라고 다시 한 번 파고들었다.

박 시장이 “시대의 요구나 국민 부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시대적 요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출마하면 시장직을 내려놓느냐, 정치인은 소신이 분명하고 예측이 가능

해야 한다. 출마할 때 시장직을 내려놓느냐는 등을 질문을 던지며 박 시장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도 “(대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말로 함축적으로 해석하면 되나”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국가지도자가 된다는 건 소명과 역사적 시대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렵다. 이런 게 나에게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은 SH공사 선투자 후 회수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박 시장은 채무 감축을 위한 여러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맞서며 논쟁을 벌였다.

“한진해운 최선 다했다”...조양호 회장 선 채로 답변

◇정무위=이날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주목을 받았다. 정무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빚어진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조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속개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조 회장은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푸른색 타이틀을 메고 출석했다. 조 회장은 처음에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을 시작했으나, 몇 마디 후 답변대 로 자리를 옮겨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선 채로 답변을 이어갔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조 회장은 “아직은 괜찮다”며 서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추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군의 날 발언 놓고 공방전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최경환 의원이 4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과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주민들에 탈북을 권유한 국군의 날 기념사 발언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박지원 “대통령 탈북 권유 발언은 선전포고” 청와대 “박위원장은 北에 어떤 약점 잡혔나”

것과 관련, 언론을 통해 “박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이 북에 약점을 잡혔느냐

고 묻지 말고 수사를 해라. 그 사실은 정부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나, 떳떳하게 실명을 밝혀라.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얼굴을 내 보라”고 일갈

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장성 출신의 문자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광주천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